

章法 연구의 모식과 그 가치

— 陳滿銘의 章法學을 중심으로

金華珍*

< 목 차 >

1. 들어가며
2. 장법 연구 모식
 - 2.1 전통 이론의 계승과 철학적 사유 개념
 - 2.2 편장구조의 사유 모식
 - 2.3 장법의 유형과 원칙
3. 장법학의 가치와 문제점
 - 3.1 학제 연구의 방향 제시
 - 3.2 체계적 장법이론 정립
 - 3.3 교학의 효용성
4. 나오며

1. 들어가며

문장을 연구하는 학문을 ‘문장학’ 또는 ‘사장학(辭章學)’이라 하며, 이는 어휘학, 의상학(意象學), 문법학, 수사학, 장법학, 주제학, 문체학, 풍격학 등의 분야를 모두 포괄한다. 이 중에서도 장법학은 문장학 연구의 중요한 일환으로써 수사학, 어학, 논리학 및 미학 등 여러 방면의 학문 분야와 결합되어 문장(구어 포함)의 장법 현상 및 그 이론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¹⁾ 장법학은 이미 중국

대륙 학자 張志公이나 鄭頤壽²⁾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합축적인 어휘 사용으로 인한 모호성 때문에³⁾ 실제 교학과정에 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만 학자 陳滿銘⁴⁾은 전통의 장법 개념과 철학적 사유 방식을 계승하되 기존의 이론적 틀을 벗어나 철학, 미학, 심리학 등 다각도로 연구 분석하여, 실질적 측면의 장법 규율과 원칙을 정립하였다. 또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 범주와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교학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병행된 학문의 진형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대만의 신흥 장법학의 원칙 및 유형 등의 연구 모식을 소개함으로써, 비단 수사학뿐만 아니라 중국어문학 연구에 있어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해보고 국내 현 학술계를 반성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장법 연구 모식

《辭海》에서는 장법에 대해 “시문의 작자가 문장 전체의 편장을 안배하는 방법이며, 문장의 體勢·承轉·熔裁 등을 말한다. 그러나 장법에는 정해진 격식이 없으며, 작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⁵⁾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장법을 작가 입장에서의 방법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陳滿銘은 장법에 대하여 연구자의 문장구조를 분석하는 사유형태이자 문장을 구성하는 격식이라 정의하고

2) 張志公(1918—1997), 중국어문학자, 북경태생. 북경언어학회, 중국수사학회의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漢語語法常識》, 《修辭概要》, 《語法學習講話》 등이 있다. 그는 각 지역에서의 강연을 통해 한어어법과 언어교육을 보급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 鄭頤壽, 중국 복건 사람으로 복건사범대학 중문과 교수이자 어문학자이다. 복건수사학회 회장, 화동수사학회 부회장, 중국수사학회 사학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比較修辭》, 《新編修辭學》, 《文藝修辭學》, 《辭章學辭論》 등 50여 종이 있으며, 100여 편의 학술논문과 200여 편의 문학작품이 있다.

3) 鄭頤壽, <臺灣辭章學研究述評>, 2001년 참고.

4) 陳滿銘(1935-), 대만인, 현 국립대만사범대학 중문과 교수. 儒學, 詞學을 전공하였으며, 장법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주요저서로는 《文章結構分析》, 《文章的體裁》, 《詩詞新論》, 《章法學新裁》 등 20여 종이 있으며, 100여 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5) 《辭海》: 指詩文作者在安排全篇章節時的方法. 包括文章的體勢、承轉、熔裁等. 章法並無定格, 在於作者的運用.

* 誠信女大 中文科 講師.

1) 陳滿銘, 《章法學新裁》代序, 1쪽.

있다. 사실 학술계에서 장법이라는 단어는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진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가 바로 장법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즉 문장이 완성됨과 동시에 장법 역시 이미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장에는 장법 현상이 있으며, 문장에 따라 각각의 다른 형태의 장법이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는 연구자 입장에서의 장법이다. 즉 장법은 연구자의 인식과 주장, 지식과 이론 등에 의해 만들어진 연구 성과물이며, 이미 작가의 손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연구 분석인 것이다.⁶⁾ 비록 이 두 가지 견해는 작가와 연구자라는 다른 시각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그 의미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 결국 연구자도 문장의 장법을 통해 작가의 저술 의도와 주요 논지에 접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만 장법학은 어떠한 연구 방법과 원칙을 통해 작가의 본의와 작품의 구도를 파악하고자 했을까? 본고에서는 편의상 대만 장법학의 주장자인 陳滿銘의 이론과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 모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전통 이론의 계승과 철학적 사유 개념

陳滿銘은 장법학의 기본 맥락과 구조를 《周易》, 《老子》등의 중국 철학적 논리에 근간을 둬으로써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즉 그는 중국의 농후한 민족의식이 내포된 변증법적 철학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과 형식, 장법기교, 작가와 독자 등 다각도로 편장의 장법구조를 분석하고 있다.⁷⁾

《주역》은 중국 선조들의 변증법 사상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철학서이다. 《주역》의 작가는 만물의 이치가 음양에서 비롯된다고 여겼으며, 또한 음양이 둘로 나뉘어 사상(四象)이 되고, 사상이 둘로 나뉘어 8괘(八卦: 乾(하늘), 坤(땅), 震(우뢰), 巽(바람), 坎(물), 離(불), 艮(산), 兌(못))이 되고, 8괘가 16괘가 되며, 16괘가

32괘로, 또 64괘로 세분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역》의 변증법 목적이 음양의 대립과 통일의 추상적 원리를 드러내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물과 상황 아래서 발생하고 작용하는 메커니즘의 차이에 그 원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陽과 陰, 動과 靜, 生과 克, 乾과 坤, 震과 巽, 坎과 離, 艮과 兌 등 강함과 부드러움의 상반된 개념을 사용하여 천지만물의 변화를 설명한다. 즉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밀치며 교체함에 따라 변화가 발생한다(剛柔相推, 變在其中)’고 말하는데, 이는 대립적인 양면의 상호작용을 변화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천지의 두 기운이 왕성하게 교감하여 만물을 무성하게 생성한다(天地絪縕, 萬物化醇)’고 하여 대립면의 상호교감과 수용이야말로 만물 생성의 근원이자 변화와 질서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다.⁸⁾

《노자》의 천도관(天道觀)은 비록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변증법 요소가 풍부하다. 예를 들어 “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萬物을 낳는다. 萬物은 陰을 지고, 陽을 안으며, 氣가 혼연히 섞이어 변화를 만든다”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주의 만물이 음양의 기가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며 사물의 변화를 형상화 시킨다는 의미이다. 또한 모든 사물과 이치에 대해 “있음과 없음은 서로 말미암아 있고 없으며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 말미암아 쉽고 어려우며 김과 짧음은 서로 말미암아 길고 짧으며 높음과 낮음은 서로 말미암아 높고 낮으며 내는 소리와 들리는 소리는 서로 말미암아 나고 들리며 앞과 뒤는 서로 말미암아 앞서고 뒤선다”¹⁰⁾라고 하여 대립을 통한 통일, 대립을 통한 전환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 체계는 대만 장법학이 今-昔, 遠-近, 大-小 등의 장법 유형과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을 이룬다.

사실 장법에 대한 관심은 이미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劉勰은 《文心雕龍·章句》편에서 이미 字, 句, 章, 篇의 외적 연계성과 내적 관계에 대해 서술하였을 뿐 아니라 字法, 句法, 章法, 篇法에 대해 개괄적 내용을 서술한 바 있으며,¹¹⁾

6) 王希杰, <章法學門外問談>, 《國文天地》, 2002년, 제5기, 93쪽 참고.

7) 鄭頤壽는 <中華文化沃土, 辭章學園奇葩—讀陳滿銘的《章法學新裁》及其相關著作>에서 (1)내용과 형식의 변증법 (2)장법기교의 변증법 (3)읽기와 쓰기의 변증법 (4)분과 승의 변증법의 네 가지 방면으로 진교수의 변증법적 사유방법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海峽兩岸中華傳統文化與現代化研討會文集》, 131-139쪽 참고.

8) 戴璉璋, 《易傳之形成及其思想》, 196쪽 참고.

9) 《老子》제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10) 《老子》제2장: 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11) 梁劉勰, 《文心雕龍·章句》: 夫人之立言, 因字而生句, 積句而成章, 積章而成篇. 篇之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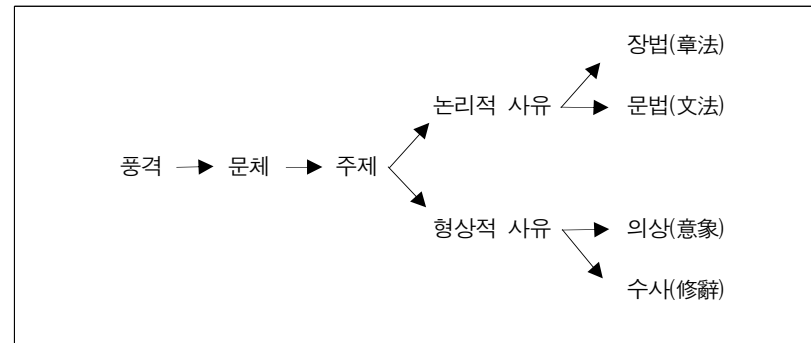
이 외에도 송대의 呂祖謙의 《古文關鍵》¹²⁾과 謝枋得의《文章軌範》¹³⁾, 명대의 歸有光的 《文章指南》, 청대의 方東樹《昭昧詹言》¹⁴⁾과 劉熙載의 《藝概》¹⁵⁾등 모두 장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들이 제기하고 있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성실히 하여 학문을 닦는다.(修辭立其誠)” “情은 믿음이 가게 해야 하고 文辭는 공교롭게 해야한다(情欲信, 辭欲巧)” 등의 개념은 장법학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장법’은 사장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학자들은 辭章學을 논할 때 ‘장법’을 특히 강조하였다.¹⁶⁾ 陳滿銘은 사장학 중에서도 특히 문장의 조직구조인 ‘장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장법학의 개념과 이론은 이미 문심조룡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陳滿銘은 전대 학자들의 이론을 수집하여 종합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장법 규율과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사장학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2.2 편장구조의 사유 모식

2.2.1 논리적 사유형태-장법학

문장을 분석하는 사유(思惟)형태는 크게 ‘형상적 사유’와 ‘논리적 사유’의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¹⁷⁾ 그 주안점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연구 방향도 달라진다. ‘형상적 사유’란 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情)’이나 ‘사상(理)’과 같은 주관적 연상들을 ‘경물(景)’과 ‘사건(事)’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과 결합하거나 혹은 ‘情’, ‘理’, ‘景’, ‘事’등의 소재들이 개별적으로 문장의 표현기교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구상하고’, ‘소재를 선택하고’, ‘말하거나 작문할 때 단어나 구(句)를 골라 쓰는’등의 문제와 관련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어휘학, 의상학(意象學), 수사학 등이다. 반면, ‘논리적 사유’란 ‘情’, ‘理’, ‘景’, ‘事’등의 각종 소재들을 작가의 객관적 연상 작용으로 질서, 변화, 연관, 통일 등의 원칙에 의해 전후로 안배하고 배치하여 층차와 맥락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주로 ‘소재를 활용하고’, ‘구(句)와 절을 조합하여 안배하는’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범주를 연구하는 학문을 文(語)法學, 章法學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주로 자구(字句)를 연구하는 학문을 文(語)法學라 하고, 편장(篇章)을 연구하는 것을 章法學이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즉 章法學은 篇章을 구성하는 논리적 사유체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句, 節, 段을 이루는 관계에 관한 일종의 조직도인 셈이다. 陳滿銘을 비롯한 대만의 신흥 장법학 학자들은 중국 선조들의 장법에 대한 논지들을 근거로 고급의 문장을 통해 표에서 열거한 약 40여종의 장법 유형을 도출해 냈는데, 이러한 장법들이 형성하는 세부적 구조형태는 약 200여종에 달한다.¹⁸⁾ 이러한 장법구조들을 질서, 변

炳, 章無疵也; 章之明靡, 句無玷也; 句之清英, 字不妄也.; 王更生, 《文心雕龍選讀》, 291-293쪽 참고.

12) 宋·呂祖謙, 《古文關鍵總論》: 文字一篇之中須有數行齊整處, 須有數行不齊整處, 或緩或急或顯或晦, 緩急顯晦相間, 使人不知其爲緩急顯晦, 常使經緯相通, 有一脈過接乎其間也, 蓋有形者綱目, 無形者血脈也.

13) 宋·謝枋得, 《文章軌範》권1, 韓愈의 <後二十九日復上宰相書>를 평하길: “文有反順起伏頓挫, 如層瀾驚濤怒波.” “句法變化與上段相對, 有權度, 有筆力.”

14) 清·方東樹, 《昭昧詹言》권8: 欲學杜、韓, 須先知義法粗胚, 今列其統例於左: 如創意、造言、選字、章法、起法、轉接、氣脈、筆力截止、不經意助語閑字、倒截逆挽不測、豫吞、離合、伸縮、事外曲致、意象大小遠近、皆令逼真、頓挫、交代、參差.

15) 清·劉熙載 《藝概詞曲概》, 142쪽: “문장의 장법은 서로 맞부딪쳐 요동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예를 들면 奇正、空實、抑揚、開合、工易、寬緊함이다.(詞之章法, 不外相摩相蕩, 如奇正、空實、抑揚、開合、工易、寬緊之類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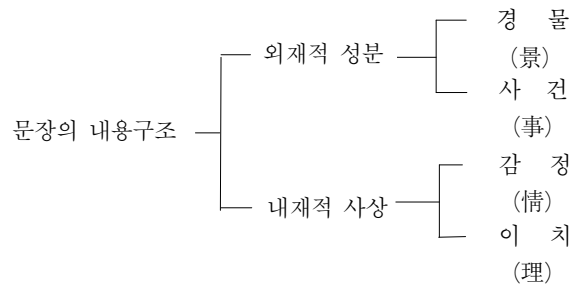
16) 張志公은 《論集》의 제1장에서, 鄭韶風은 《辭章學概論》의 제2장에서 ‘장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7) 陳滿銘, <章法的哲學思辨>, 《辭章學論文集》上(福州:海潮攝影藝術, 2002년), 41-42쪽 참고.

화, 연관, 통일의 4대 규율이라는 큰 틀로써 총괄될 수 있으며, 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조화와 대비라는 陽剛陰柔의 철학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¹⁸⁾

2.2.2 장법과 문장내용의 관계

작가들은 문장을 창작할 때, 내재적 핵심 사상과 주제를 재제의 선택과 적절한 활용을 통해 다원적이면서도 미적 감각에 적합한 구성 방식으로써 표현해 낸다. 장법학으로 문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비단 작품의 문장구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부에 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과 핵심 주제 등 내용구조의 분석도 포함한다. 이른바 내용구조란 ‘감정(情)’, ‘이치(理)’, ‘경물(景)’, ‘사건(事)’의 4가지 성분을 포함하며, 한 편의 문장 작품은 핵심적이고 추상적인 사상(감정(情), 이치(理))과 그것을 이루는 외재적이고 구체적인 소재(경물(景), 사건(事))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18) 여기서 장법유형의 숫자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문장안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현재 연구 중이거나 아직 이론화 되지 않은 장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장 자체가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문장은 새로운 장법 현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법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王希杰, <章法學門外閑談>, 《國文天地》, 2002년, 제5기, 97쪽 참고.

19) 陳滿銘, 《章法學綜論》, 제3장 장법철학, 59-106쪽.

20) 陳滿銘, 《章法學新裁》, 505-506쪽.

외재적 성분은 경물(景), 사건(事)을 포함하며, 이 두 성분은 문장 작품의 구체적 소재이다. 경물(景)이란 천문, 지리, 동식물, 기후 등의 자연물과 인체 특징, 인공 건축, 기물, 음식 등의 인공물²¹⁾로서 작가의 감정과 상응하여 서술 소재가 된다. 작가는 창작할 때 이러한 외재적 경물의 특징과 가치를 파악하고, 문장의 내재적 사상, 감정과 부합되는 소재를 선택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가장 적절한 意象을 만들어 낸다.

사건(事)이란 천지우주시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로서, 경험했던 사실이나 역사적 전고 심지어는 허구적 이야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건(事)의 소재를 통해 독자들은 연상 작용을 일으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외재적 성분은 문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재적 사상, 즉 문장의 핵심성분은 감정(情), 이치(理)를 포함하며 추상적 개념이다. 감정(情)이란 喜·怒·哀·懼·愛·惡·欲 등의 심리상태를 말하며, 이치(理)란 의론, 설명, 평론 등을 포함한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사리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情)과 이치(理)는 문장의 내용구조 중 주요한 요소이다. 문장 전체의 요지인 ‘篇旨’와 단락의 요지인 ‘章旨’는 어떻게 안배하느냐에 따라 篇首·篇腹·篇末 및 篇外の 형식을 이루며, 각각 특수한 작용과 미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문장 내용 구조의 핵심 성분은 사실상 篇과 章, 안배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내용구조의 조직 형태는 ‘단일형태’와 ‘복합형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일형태’란 ‘감정(情)’, ‘이치(理)’, ‘경물(景)’, ‘사건(事)’의 주요 성분이 단독으로 편장 구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복합형태’란 ‘감정(情)-경물(景)’의 복합이라든지 ‘사건(事)-경물(景)-감정(情)’의 복합처럼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복합적으로 편장 구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문장의 편장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구조뿐 아니라 내용적 구조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

21) 陳滿銘, 《章法學新裁》, 397쪽. 江錦珩, 《詩詞義旨透視鏡》, 211-241쪽 참고.

인지 먼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구체적 소재(事, 景)를 운용하여 내용(情, 理)을 표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법구조를 분석할 수 없게 된다.

2.3 장법의 유형과 원칙

장법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화용론(語用學), 수사학(修辭學)과는 연구 초점이 다르다. 즉 수사학은 장법의 표현 효과를 중심으로 그 현상을 분석하지만, 장법학은 장법현상 본연으로써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3.1 장법의 유형

위 절에서 언급했듯이, 문장은 논리적 사유를 통해 情, 理, 景, 事의 네 가지 성분이 개별적 혹은 복합적인 모식으로 문장의 장절과 단락을 이루면서 여러 형태의 장법을 형성하게 된다. 문장의 문체나 형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논리 구조는 오히려 매우 제한적이어서 아래의 몇 가지 관계 모식으로 정리되어 진다. 장법의 유형은 대략 다음과 같다.²²⁾

공통성	유형	장법(章法)	효과
초점과 배경(圖底)	시간	금석법(今昔法) : 현재와 과거	입체미
		구점법(久暫法) : 오래됨과 순간	
		문답법(問答法) : 질문과 대답	
	공간	원근법(遠近法) : 멀과 가까움	
		내외법(內外法) : 내부와 외부	
		좌우법(左右法) : 왼쪽과 오른쪽	
		고저법(高低法) : 높음과 낮음	
		대소법(大小法) : 큼과 작음	
		시각전환법(視角變換法)	
		지각전환법(知覺轉換法)	
		상태변화법(狀態變化法)	

22) 陳滿銘, 《章法學綜論》, 제2장 제1절, 17-32쪽 참고.

원인과 결과(因果)		본말법(本末法) : 시작과 결말	점층미
		천심법(淺深法) : 알음과 깊음	
		인과법(因果法) : 원인과 결과	
		종수법(縱收法) : 전개과 회수	
허구와 사실(虛實)	구체와 추상	범구법(泛具法) : 공허와 구체	변화미
		점염법(點染法) : 제시와 부연	
		범목법(凡目法) : 총괄과 낱낱	
		정경법(情景法) : 감정과 경물	
		논서법(論敘法) : 이론과 사물	
		상략법(詳略法) : 상세와 간략	
	시간과 공간	시간적 허구와 사실	
		공간적 허구와 사실	
		시공간 교차의 허구와 사실	
	진실과 허구	가설과 사실의 허구와 사실	
		소망과 실제의 허구와 사실	
		몽상과 현실의 허구와 사실	
허구와 진실의 허구와 사실			
대비(映襯)	영조(映照)	정반법(正反法) : 정면과 반면	조화미 대비미
		입과법(立破法) : 세움과 부숨	
		억양법(抑揚法) : 폄하와 찬양	
		중과법(衆寡法) : 다수와 소수	
		장이법(張弛法) : 긴장과 이완	
	친탁(襯托)	빈주법(賓主法) : 주체와 객체	
		평측법(平提側收法) : 나열과 수렴	
		천인법(天人法) : 자연과 인사	
		편전법(偏全法) : 국부와 전체	
		고격법(敲擊法) : 측면과 정면	
		병렬법(並列法) : 나열	

이상의 장법은 문장에서 비교적 자주 보여지는 유형이며, 그 범주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러한 장법유형은 ‘篇’이나 ‘章(節, 段)’에 쓰여 문장의 내용(情, 意, 景, 事)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대만의 장법학 연구는 변증법적 철학론을 근거로 하면서도 변증법적 사유체계의 난해한 부분이나 철학적 현답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의 논리 아래 자신의 연구결과를 이해와 응용이 쉬운 실용학문으로 자리매김 하였다.²³⁾

23) 대륙 수사학 연구도 전통적인 변증법 사상을 계승하고 있어, 일부 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2.3.2 장법의 규율

장법학 유형들은 대량의 문장을 통해 도출해낸 결론으로써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귀납적 법칙을 모든 문장에 적용시키는 것은 분명 무리수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陳滿銘은 장법학의 4대 원칙인 ‘秩序律’, ‘變化律’, ‘聯貫律’, ‘統一律’을 내세움으로써 이를 극복하려 하였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秩序律 : ‘질서율’이라는 것은 문장을 이루는 소재들을 조리에 맞게 배열한다는 의미로서 모든 장법이 이 규율에 의해 전후 배열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今昔法의 今과 昔을 이루는 문장성분은 어디에 배열하느냐에 따라 ‘先今後昔’, ‘先昔後今’의 구조로 구성되어 질 수 있으며, 遠近法은 遠과 近의 배열순서에 따라 ‘先近後遠’, ‘先遠後近’의 구조로 배열되어 질 수 있다.²⁴⁾

2) 變化律 : 작자는 시간, 공간 혹은 사건이 전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변화를 주어 들쭉날쭉함 속에서 가지런함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변화율’이라는 것은 문장 소재의 배열 순서를 뒤섞어 다시 안배한다는 의미이며, 順逆 을 교차함으로써 곡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今昔法에 있어서 ‘今-昔-今’, ‘昔-今-昔’의 배열이라든지, 遠近法에 있어서 ‘遠-近-遠’, ‘近-遠-近’ 등의 변화된 배열을 말한다. 이러한 ‘順과 ‘逆’이 교차하는 구조 역시 문장에서 자주 보여 지며, 이 외에도 A-B, B-A / A-A-B, B-B-A / A-B-A, B-A-B / A-O, B-O 등의 다양한 변화 구조들이 있다.

3) 聯貫律 : ‘연관율’이라는 것은 편장의 앞뒤의 편장들이 서로 맞물리고 호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銜接’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떠한 장법이건 간에 모두 부분적인 ‘조화’와 ‘대비’로부터 맞물리고 호응하여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일반적으로 40여 종의 장법 중에서 貴-賤, 親-疏, 正-反, 抑-揚, 立-破, 衆-寡, 詳-略, 張-弛등이 비교적 쉽게 ‘대비’의 구조를 형성하며, 今-昔, 遠-近, 大-小, 高-低, 淺-深, 賓-主, 虛-實, 平-側, 凡-目, 縱-收, 因-果 등은 ‘조화’의 구조를 형성한다.²⁵⁾

4) 統一律 : ‘통일율’이라는 것은 문장의 각 부분이 형식상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편장사이의 호응, 대조, 조화 등의 관계를 통해 전체 문장안에서 통일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소재들의 情意를 통괄하여 문장 전체를 관통함으로써 각 문장만의 독특한 풍격을 형성하게 되며 설득력과 감동을 전하는 강렬한 힘을 갖게 된다. 앞서 말한 질서율, 변화율, 연관율이 문장과 문단의 형식적 측면에 치중한 원칙들이라면, 統一律은 문장의 주제(情意)와 요지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적 측면을 고려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의 대강(大綱)은 單軌(A₁ -A-A₂ /A-A₁ -A₂ /A₁ -A₂ -A 등 단면구조), 雙軌(A₁ -AB-B₁ /AB-A₁ B₁ -AB 등 복면구조) 혹은 多軌(ABD-A₁ B₁ -B₂ C₁ /ABCDE-A₁ B₁ C₁ D₁ E₁ 등 다면구조)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주제가 문장의 어느 부분(篇首, 篇腹, 篇末과 篇外)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장법구조는 ‘논리적 사유’를 근간으로 ‘형상적 사유’를 보완함으로써 형성된다.

이상으로 장법의 유형과 원칙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杜甫의 <聞官軍收河南河北>시를 예로 들어 장법이 문장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보도록 하자.

劍外忽傳收薊北	홀연히 하남북 수복소식 촉땅에 전해지니
初聞涕淚滿衣裳	처음 듣고 눈물 흘러 옷을 흠뻑 적시네.
却看妻子愁何在	처자 얼굴 보니 수심 어디에 있었다.
漫卷詩書喜欲狂	서책 거둬 말며 미친 듯이 기뻐하네.
白首放歌須終酒	백발에 노래하며 마냥 술을 마시고
青春作伴好還鄉	푸른 봄에 가족 이끌고 귀향하련다.
卽從巴峽穿巫峽	즉시 파협에서 무협을 뚫고 가듯 지나
便下襄陽向洛陽	곧바로 양양으로 내려가 낙양으로 향하리라.

이 시는 안록산 일파의 반군이 오래도록 점령한 하남북지방이 수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기뻐하는 심정을 읊은 것으로 ‘目₁ (사실)-凡-目₂ (허구)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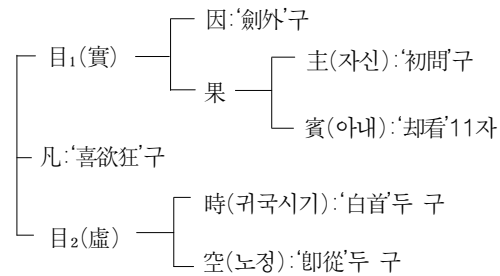
26) ‘凡’은 ‘총괄’을 의미하며, ‘目’이라는 것은 낱말의 항목을 말한다. 이 장법유형은 산문에서 자주 보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대 문장가들의 글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陳騷, 《文則》: ‘總-數’(12쪽); 歸有光, 《文章指南》: ‘總提-分應’(11-12쪽); 唐彪, 《讀書作文譜》: ‘總-分’(93쪽); 王葆心, 《古文辭通義》: ‘外籀-內籀’(46쪽); 蔣伯潛, 《中學國文教學法》: ‘綜合-分析’(84-85쪽) 등이 있는데, 비록 각각 사용된 명칭은 다르지만 총괄과 각각의 나누어진 조목이라는 의미는 같다.

국내의 학술계에 광범위하게 인정과 긍정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남경대학 王希杰 교수의 수사이론연구, 복단대학 宗廷虎 교수의 수사학사 연구 등이 있다.

24) 陳滿銘, 《章法學綜論》, 제2장 제2절, 35-36쪽 참고.

25) 陳滿銘, <論辭章章法的四大律>, 《國文天地》, 2001년, 17권 제4기, 104쪽.

의 장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은 갑자기 들려온 수복소식(원인)에 감격의 눈물 흘리는(결과₁) 모습을 묘사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은 질문 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묘사의 중심을 수심 거두고 서적을 정리하는 처자(결과₂)로 옮기고 있다. 네 번째 구절의 '喜欲狂'세 글자는 이 시의 요지이자 '凡(총괄)'에 속한다. 즉 이 시는 '喜欲狂'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사실의 내용(目₁)을 묘사하고, 뒷부분에는 상상속의 시공간적 노정(目₂)에 대해 읊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장법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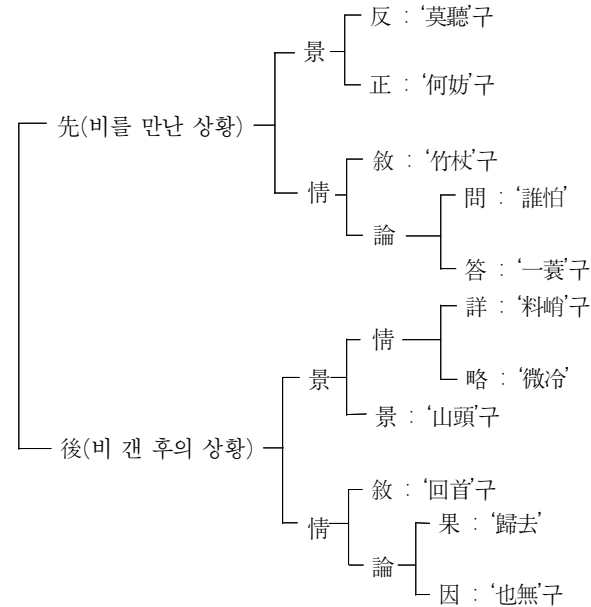
이 조직도에서 알 수 있듯이 <聞官軍收河南河北>시는 '目₁ (사실)-凡(총괄, 주지)-目₂ (허구)'이외도 '先因後果', '先時後空', '先主後賓' 등의 장법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凡(총괄, 주지)'을 중심으로 앞뒤로 사실과 허구의 '目'부분이 관통되면서 내용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또 다른 한 편의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소식의 <定風波>는 元豐 5년 소식이 黃州에 편적되어 있을 때 지은 사이다.

莫聽穿林打葉聲.	수풀을 뚫고 잎새 부딪치는 빗소리 들을 것 없다.
何妨吟嘯且徐行.	읊조리며 빗속을 천천히 거닐들 어떠하랴.
竹杖芒鞋輕勝馬.	죽장에 집신 신과 걷는 게 말타기보다 경쾌한데,
誰怕?	무엇이 두려우랴!
一蓑煙雨任平生.	이슬비에 도롱이 쓰고 한 평생 살아가리.
料峭春風吹酒醒.	선득한 봄바람이 불어와서 술을 깨우니,
微冷.	약간 서늘하구나.
山頭斜照卻相迎.	산머리에 비긴 낙조가 뜻밖에 맞아주네.

回首向來蕭瑟處.	고개 돌려 지나온 쓸쓸한 길을 바라보니,
歸去.	돌아가는 길에는,
也無風雨也無晴.	비바람도 없고 맑음도 없구나.

이 시의 題詞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3월 7일 沙湖에 가는 길에 비를 만났다. 우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동행하는 자들은 모두 난감해 하는데 나만 홀로 느끼지 못하네. 비가 멈추고 날이 개어 이 시를 지었다(三月七日, 沙湖道中遇雨. 雨具先去, 同行皆狼狽; 余獨不覺. 已而遂晴, 故作此詞.)" 즉 길을 가는 도중 비를 만나고 나중에 맑게 갠 후의 감정을 읊은 것으로, 시간상으로 볼 때 명확한 전후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先-後의 장법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장법의 4대 규율 중 문장을 이루는 소재들을 조리에 맞게 배열한다는 '질서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단계 분석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모두 '先景後情'의 장법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의 장법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작품은 작가가 비를 만난 상황(先)과 맑게 갠 후의 상황(後)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반부(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은 도중에 비를 만난 경치를 주로 묘사(景)하고 있으며, ‘莫聽’·‘何妨’이라는 어구로 ‘正-反’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은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도롱이로 안개비를 막았지만 두려운 것이 없는 소식의 감정을 담담한 서술(敍)과 문답형(問-答)의 설명(論)으로 그려내고 있다. 비 갠 후의 상황을 묘사한 후반부(後) 역시 ‘先景後情’의 장법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先景後情’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작품은 더욱 리듬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일종의 질서의 미적효과를 형성하게 되는데 ‘景-情-景-情’의 구조는 독자들이 작품을 읽을 때 조화로운 흐름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굴곡이 많은 인생길을 되돌아보니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같아서 ‘비바람도 없도 맑음도 없구나’라고 하여 비바람과 맑음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귀결시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어사대의 감옥에 있을 때는 수동적이기만 했던 소식이었지만, 황주의 동쪽 언덕에 있을 때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담담하게 대할 수 있었으니, 작가의 선의 경지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음을 보여준다. 작품 전체의 수미가 서로 기맥이 통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비록 비바람과 맑음이라는 두 층으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지만 ‘비바람도 없도 맑음도 없구나’라는 구절로 전체 내용을 통괄하고 있다.

문장 구조나 길이에 상관없이 단지 문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층차를 잘 파악하여 이해하고 많게는 세 번째 층차까지 장법 유형을 분석해낼 수 있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독해와 작문 지도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한어 교수법에 운용된 장법학을 문학을 포함한 모든 문장의 분석 기제로 운용한다는 점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법 이론을 숙지하여 응용하면 전체 문장의 함의와 예술적 가치를 심도 있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문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형식구조를 파악하고 이로써 내용구조를 명확히 하면 문장의 내용과 형식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3. 장법학의 가치와 문제점

3.1 학제 연구의 방향제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문이 자신의 틀 속에 갇혀서 충분히 보지 못했던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연구 의의, 명확한 연구대상과 범주, 이론체계 등이 정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학문과 학문 사이를 포괄하여 뛰어넘는 학제 연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창조적인 전문 지식은 하나의 좁은 분야에 얽매어서는 만들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장의 체제에 따라 장법구조가 달라지는 장법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²⁷⁾ 예를 들어 의론문은 논리적 사유와 연역, 귀납적 방법으로 사물의 이치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장법이론으로써 문장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즉 문장에 따라서 문장학, 시학, 미학, 논리학, 풍격학, 수사학 등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수사학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성률, 자법, 문법, 구법, 장법, 辭格, 藝法, 표현기법, 문체, 풍격 등의 거시적, 미시적 문장의 창작기교에 관한 모든 이론체계를 포함한다. 또한 구어, 서면어, 전자어 등의 모든 전달 매개를 포함하며, 고대는 물론 근·현대의 모든 시공간을 포함한다. 장법학은 문장학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학문분야의 이론, 원칙, 방법 등의 종합적 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陳滿銘은 비단 장법학을 개별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장법과 철학이 결합된 ‘장법철학’을 비롯해 ‘장법미학’·‘장법심리학’·‘비교장법학’ 등 장법과 기타 학문을 연계시켜 학제연구의 새로운 연구모식을 제시하고 있다.²⁸⁾ 비교장법학만 보더라도 고급장법비교, 언어 체계 장법 비교· 풍격비교· 개인의 장법비교· 민족간의 장법비교 등 여러 방면이 있다 그는 또한 장법과 문체, 장법과 풍격, 장법과 語境

27) 吳訥, 《文章辨體》: 문사는 체제를 우선으로 삼는다.(文辭以體制爲先)

28) 陳滿銘, 《章法學綜論》, 제3장 장법철학, 제6장 장법미학, 제7장 비교장법 참고.

등 장법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비단 서면어 뿐만이 아니라 구어, 전자어(모스부호) 등 장법학의 연구 대상의 폭도 넓혔다.

3.2 체계적 장법이론 정립

대륙의 수사학자 王希杰는 대만의 장법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唐鉞, 王易, 陳望道 등의 학자들이 중국의 전통적 수사학을 현대수사학으로 전환했다면, 陳滿銘과 그의 제자들은 중국 장법학의 연구 방향을 과학적 장법학으로 모색하여 한어장법학 연구를 과학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²⁹⁾ 대만 장법학의 가장 큰 특징을 창의적이며, 과학적인 이론 체계라고 서술하고 있다. 40여 년이라는 짧은 연구 역사를 가진 대만의 장법학 학자들이 모든 장법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형식화, 조직화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장 속에 함의된 글꼴의 감정과 의도, 서술 방식 등을 가시화 하는 작업 또한 주관적 추측이나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는 운문과 산문을 막론하고 고급의 우수한 작품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함으로써 이론 체계에 신뢰성을 부여하였다.

그는 또한 <談詞章的兩種基本作法歸納與演繹>, <談安排詞章主旨的幾種基本形式>, <談運用詞章材料的幾種基本手段>, <章法學新裁>, <章法學論粹>, <章法學綜論> 등 10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10여종의 전문저서를 출판하여 장법학의 원칙을 총결하였으며, 장법학의 연구 의의, 연구 범주, 연구 방법 등을 새롭게 모색하여 완전한 이론 체계를 세움으로써 어문학 연구의 새로운 연구 모식을 만들었다. 물론 대만의 신홍 장법학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데에는 장법은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지탄하던 학계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陳滿銘의 학문에 대한 열정도 중요했지만, 그의 학문 체계를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학술화 시킨 仇小屏, 陳佳君, 夏微微, 黃淑貞 등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29) 王希杰, <章法學門外閒談>, 《國文天地》, 2002년, 제5기, 96쪽.

싶다. 이 중에서도 仇小屏은 《中國辭章章法析論》, 《文章章法論》, 《篇章結構類型論》, 《時空設計美學》 등의 장법 이론 전문서를 펴냄으로써 장법학 이론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3.3 교학적 효용성

대만의 장법학 연구는 독립된 학문 체계이지만, 그 학술적 근원은 수사학으로 올라간다. 다시 말해, 장법학은 응용수사학 연구를 보완 수정 하여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사학은 언어학 중에서 실용성을 지닌 학문 분야로서 사회 대중과의 연계성이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대륙의 수사학 연구는 이론적으로 상당한 역사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실용수사학 방면으로도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전히 순수이론의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⁰⁾ 이로 인해 수사학은 점점 대중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했으며, 그들이 언어소통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언어 문제들을 시원스레 해결하여 의사소통의 정도를 제고시키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장법학은 실용성이 매우 강한 학문으로써 그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다. 陳滿銘은 《章法學新裁》 서문에서 장법 연구 동기가 한어교재 교수법을 강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³¹⁾ 기존의 장법 이론이 실제 교과 과정에 응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꼈던 그는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한 장법 용어들을 정리함과 함께 고급의 우수한 문장을 실례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도와 설득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형상화되고 직관적인 도표와 문자—장법결구분석표를 사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기존의 장법 개념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 응용가치를 가장 중시하였던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발견하고 정리한 장법이론을 교학과정에 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

30) 鍾玖英, <台灣章法學研究對大陸修辭學研究的啓示>, 《渤海大學學報》, 2005년 제6기: <漢語修辭學21世紀應成爲“顯學”>, 《修辭學習》, 1995년 제3기 참고.

31) 陳滿銘, 《章法學新裁》 서문, 1쪽.

친을 결합한 경험을 재정리하고 이론화시켜 교학 관련인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간했다.³²⁾ 陳滿銘은 이러한 학술적 노력과 함께 장법학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는데, 그 중에서도 仇小屏은 陳滿銘이 세운 이론을 근거로 장법의 응용 범주를 확장하면서 실증적 예증 작업을 통해 장법의 내부 구조를 더욱 구체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학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저서를 펴내고³³⁾ 교학 과정에 응용함으로써 대만의 한어 교육에 있어 체계화된 학습 모식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장법학이 ‘무용지물’이라는 학술계의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륙, 홍콩 등지의 학자들에게 그 학술적 가치와 실질적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³⁴⁾ 지속적인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명실상부 중국 문장학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⁵⁾

이러한 대만의 장법학을 문학텍스트 분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그것을 활용했을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본고의 가장 중요한 서술 목적이다. 장법의 교학적 활용은 크게 독해와 작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독해에 있어서의 장법의 효용성을 살펴보자. 우리는 문학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해제’, ‘자자생평’, ‘단어해석(한자의 경우 形, 音, 義)’, ‘어구분석(문법)’, ‘주제파악(주제, 이미지)’, ‘작법분석(수사, 장법)’, ‘감상’, ‘비평’³⁶⁾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장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작법분석(수사,

문법)인데, 형상적 사유를 중시한 것이 ‘수사’이고 논리적 사유를 강조한 것이 ‘장법’이다. 이른바 장법이라는 것은 문장구성의 형태로서 句를 조합하여 節을 이루고, 節을 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법칙을 말한다. 이러한 문장 구성의 형태는 비록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여 단지 몇 개의 고정된 격식으로 그것들을 망라할 순 없지만, 모든 작가들은 문장의 구성을 참작하고 배치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인류의 기본적인면서도 공통적인 인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글이 이루어지고 법칙이 마련되었다는(文成法立)’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면서도 공통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개괄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질서, 연관, 통일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교학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파악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교과서 문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법의 여러 유형들을 이용하여 문장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첫째 문장의 요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며, 둘째 작품에 쓰인 기교와 방법을 분별해 낼 수 있으며, 셋째 문장구조 속의 배열과 대비, 변화 등을 통해 미학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작문에 있어서의 장법의 효용성을 살펴보자. 이는 문학 작품의 창작 활동에 반드시 장법을 활용해야만 뛰어난 작품을 써 낼 수 있다기 보다는 교사들이 아직 학습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습작을 지도하는데 더 유용하리라 본다. 주제만 던져주고 작문을 하게 하기보다는 장법의 여러 유형을 활용하여 글을 짓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제를 정해준 다음, 正反法, 因果法, 遠近法 등의 장법을 활용하여 1000자 이내로 작문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인 글쓰기 훈련을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나오며

장법학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글쓰기’를 해야 하는 작가의 입장과 ‘문장의 진

32) <論章法與國文教學>, <章法教學與思考訓練>, <如何進行課文結構分析>, <如何進行作文教學>, <高中國文古典詩歌教材探析>, 《國文教學論叢》, 《作文教學指導》, 《文章結構分析—以中學國文課為例》, 《詞林散步—唐宋詞結構分析》등 다수.

33) <談章法現象>, <談談自己從事章法教學多年來的感想>, 《深入課文的一把鑰匙》, 《下在我眼睜裡的雪》등 다수.

34) 林大礎, 鄭娟榕 두 학자는 <當代漢語辭章學的三個時期與主要標志>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陳滿銘과 그의 제자가 창립한 장법학은 당대 한어 사장학의 모든 세부 학과 중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총괄적이며 가장 안정하며 규모 역시 가장 큰 학과로써 성과가 뛰어나다. 그것은 당대 한어 사장학의 건립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표식이다.” 《國文天地》, 2004년 제4기, 101쪽.

35) 鄭韶風은 <漢語辭章學四十年述評>에서 중국 사장학 연구에 대해 세 부류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부류가 바로 대만 陳滿銘을 중심으로 한 그의 제자들의 장법학 연구이다. 《國文天地(台北)》, 2001년 제17기, 96쪽.

36) 章微穎, 《中學國文教學法》(臺灣: 蘭臺書局, 1969년), 37-60쪽; 黃錦鉉, 《中學國文教材教法》(臺灣: 教育文物出版社, 1983년), 57-158쪽 참고.

체적 함의와 예술적 가치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의 입장이 맞물려 형성된 학문체계이다. 대만의 신흥 장법학 연구는 현재 이론적 체계와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된 학문으로써의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여전히 수정과 보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는 새로운 개별 사실이 등장하는 순간 깨어질 수 있는 귀납법 본연이 가진 논리적 한계이자, 도저히 도식화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연구 대상과 자료들, 그리고 각 연구자들이 지닌 저마다의 연구 시각과 방법론이 장법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장법의 유형과 원칙 그리고 도식화된 분석 방법은 간단명료하여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만, 문장을 형식화,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작가와 독자들은 무미건조하고 번잡하기만 한 무용지물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글을 쓰고 읽는 즐거움을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 아닌 단점을 지니게 된 대만 장법학은 실제로도 중국 대륙, 홍콩 심지어는 대만의 수사학계 학자들에게서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지만, 그동안 이론중심의 연구를 진행했던 대륙 수사학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생들에게 좀 더 쉽고 논리적으로 문장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陳滿銘은 논지의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법 유형 및 규율을 일목요연하게 도출, 정리함으로써 작가와 독자, 이론과 실천, 내용과 형식의 체계가 균형을 갖춘 장법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수사학계의 새로운 학문적 도약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법학에 대한 이론은 국내 연구자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를 통해 대만의 장법학 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어문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參考文獻 >

- 仇小屏, 《文章章法論》, 台北: 萬卷樓圖書公司, 1998年.
 _____, 《章法結構類型論》上下, 台北: 萬卷樓圖書公司, 2002年.

- _____, 《古典詩詞時空設計美學》, 台北: 萬卷樓圖書公司, 2002年.
 王更生, 《文心雕龍選讀》, 台北: 巨流圖書公司, 1994年.
 王 弼, 《周易略例》, 台北: 成文出版社, 1976年.
 _____, 《老子王弼注》, 台北: 河洛圖書出版社, 1974年.
 王葆心, 《古文辭通義》, 台北: 中華書局, 1984年.
 吳應天, 《文章結構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年.
 周振甫, 《文學風格例話》,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9年.
 唐 彪, 《讀書作文譜》, 台北: 偉文圖書出版社, 1917年.
 陳滿銘, 《章法學新裁》, 台北: 萬卷樓圖書公司, 2001年.
 _____, 《章法學論粹》, 台北: 萬卷樓圖書公司, 2002年.
 _____, 《章法學綜論》, 台北: 萬卷樓圖書公司, 2003年.
 陳鵬翔, 《主題學理論與實踐》, 台北: 萬卷樓圖書公司, 2001年.
 陳 駢, 《文則》, 台北: 商務印書館, 1968年.
 黃永武, 《中國詩學.設計篇》, 台北: 巨流圖書公司, 1999年.
 黃慶萱, 《修辭學(增訂三版)》, 台北: 三民書局, 2004年.
 葉 朗, 《中國美學史大綱》, 台北: 滄浪出版社, 1986年.
 蔣伯潛, 《中學國文教學法》, 台北: 泰順書局, 1972年.
 陳望衡, 《中國古典美學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8年.
 劉熙載, 《劉熙載文集》,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戴璉璋, 《易傳之形成及其思想》, 台北: 文津出版社, 1989年.
 歸有光, 《文章指南》, 台北: 廣文書局, 1972年.
 王希杰, <章法學門外問談>, 《國文天地》, 2002年.
 陳滿銘, <論辭章的章法風格>, 《修辭論叢(第五輯)》, 台北: 洪葉文化事業公司, 2003年.
 鄭頤壽, <臺灣辭章學研究述評>, 《國文天地》, 2001年.
 _____, <中華文化沃土, 辭章學圃奇葩——讀陳滿銘的《章法學新裁》及其相關著作>, 《海峽兩岸中華傳統文化與現代化研討會文集》, 2002年.
 鄭韶風, <漢語辭章學四十年述評>, 《國文天地》, 2001年.
 鍾玖英, <台灣章法學研究對大陸修辭學研究的啓示>, 《渤海大學學報》, 2005年.
 _____, <漢語修辭學21世紀應成爲“顯學”>, 《修辭學習》, 1995年.

< 中文提要 >

台灣學者陳滿銘成功地建立一個比較科學的章法學體系，他和他的弟子們在章法學成爲獨立的學科做出了獨特的貢獻。所謂“章法”，指的是篇章之邏輯條理或組織。章法所探討的是，篇章之條理，亦即連句成節(句群)、連節成段、連段成篇的邏輯組織。這種源於人心原本的邏輯條理或組織，就自覺或不自覺地反映在各類作品中。到目前爲止，陳滿銘從古今辭章上所發現的，以整體之條理而言，可用四大規律加以統合；以個別之條理而言，約有40種章法類型，散見於各文體；而由各章法所形成之結構，則將近200兩百種，應用於各類作品。這些章法學法則閱讀和寫作教學中是有用的，是學術價值也很高。本文即特別以章法規律及其類型爲重點，考辨其相應的邏輯條理或結構，以見章法結構之究竟與價值。

關鍵詞：台灣、章法學、陳滿銘、章法類型、章法結構、章法規律、秩序律、變化律、聯關律，統一律、辨證法、教學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8. 7. 18	2008. 8. 7	2008. 8. 21	2008. 9. 20	2008. 9. 30